

2003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팀 -

1 양계업 전 업계 불황 장기화

금년 한해는 양계업 전반적으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양가들 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큰 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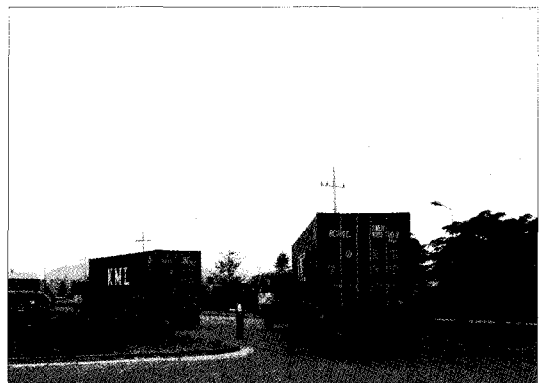
육계업의 경우 지난해 월드컵 개최 이후부터 생산비 선 이하의 가격이 1년 넘게 형성되면서 육계인은 물론 계열업체 등 관련 업계까지 경영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산란업계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소비부진,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으로 사양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육계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917원, 금년 상반기 953원으로 사상 최악의 육계가격을 형성하였고 지난 8월 (주)신동방 계열사인 (주)해표푸드서비스가 최종 부도를 맞으면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산란계업계에서도 DC폭이 커지고 난가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노계도태 지연에 따른 중추입식이 늦어지면서 중추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계업계 및 계열화 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병아리 렌더링을 실시하고,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종계 도태자금 지원, 수매비축 사업 등을 통해 산업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 과잉 종계입식 등에 의해 당분간 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에 계란 100만개 지원

본회는 침체되어 있는 채란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생산자 및 사료업계 등 관련업계의 도움을 받아 '계란소비 홍보 및 불우이웃 사랑의 계란보내기 행사'를 전개하여, 1억6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북한에 100만개의 계란을 지원하고, 120여개의 불우시설에 37만개의 계란을 전달하였다.

북한 돕기 추진 단체인 (재)한민족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100만개의 계란은 지난 6월 1일 북한의 어린이날인 '국제 아동절'을 맞이하여 북한 전역에 있는 유치원과 탁아소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란업계로서는 소비위축이 예상되던 5월동안 2차례의 계란가격이 오르는 등 비수기철을 맞아 계란소비의 활성화



화를 피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사업은 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수당 1원 걷기운동'과 함께 사료업계에서는 산란사료 판매기준으로 톤당 100원씩을 거출기로 하는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삼화육종에서는 지난 5월과 9월 종란 1만3천개와 2만개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육종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기도 하였다.

3 본회 지부·분회, 도지회 및 시·군 지부로 명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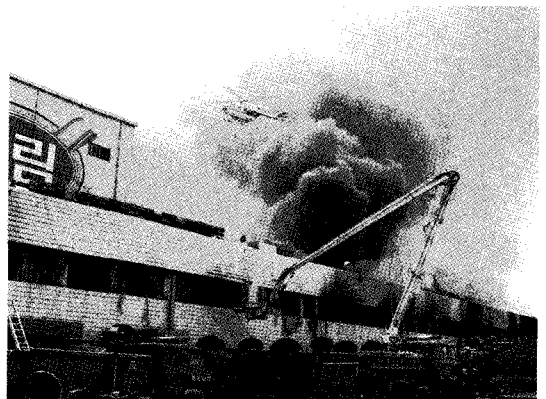
본회의 지부·분회 명칭이 지난 3월 24일자로 도지회 및 시·군 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양계산업의 제반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기존의 지부·분회 명칭사용으로 인한 협회산하조직에 대한 위상이 대내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점을 한 차원 개선시켜 협회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이루어졌으며, 이는 금년 2월 26일 개최된 본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변경 신청을 농림부에 요청한 결과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회 조직은 전국에 5개 지회(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회)와 산란계 15개 지부(천호지부 등), 육계 17개지부(고양지부 등)를 두게 되어 있으며, 각지역 지회 산하에 지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협회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주)하림 도계장 화재, 유통 혼란 초래

지난 5월 12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하림 도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계장은 1991년 3월, 1일 30만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도계 공장으로 국내 25%의 닭고기를 처리해왔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가공공장은 피해가 없었으나 도계장 및 냉동창고가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유통업계에 동요를 가져오면서 사육농가들은 출하지연, 입추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큰 어려움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림은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하림천하에 5백여명의 직원을 교대로 투입하여 하루 평균 30만수 가까이 닭고기를 증량생산하고, 인근도계장인 동우 등 임도계업체를 통해 8만수의 닭을 처리하는 등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닭고기 공급에는 큰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계장 신축과 관련하여 차후 생산과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시설자금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편으로는 계열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계장의 조속한 복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히 대립되면서 갈등을 겪었으나 정부로부터의 도계장 복구비가 융자 지원되고, 현재 도계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재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도계장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양계조합 폐쇄조치 및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출범

농림부는 지난 3월 26일 전북양계조합과 충북양계조합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서울경기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등 3사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조합원출자금 감액, 동조합과의 합병, 인력감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통지를 내보내는 등 금년 초부터 양계 업종조합의 부실에 따른 파장이 심화되었다. 결국 충북조합과 전북조합은 폐쇄 또는 인수 등의 절차에 따라 양계조합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3개 조합(서울경기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은 자체적인 회생을 위해 구조개선, 조합원출자금 감액, 동조합과의 합병, 인력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7월 15일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3개 조합의 통합에 대한 찬성을 얻어 조합장을 선출하고 명칭을 한국양계협동조합으로 정해 10월 22일 서울 농협지역본부에서 11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범 후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원들과의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11월 11일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조합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6 뉴캐슬병 방역실시요령 제정, 백신 추가지원 및 관리 강화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요령이 폐지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농림부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뉴캐슬병 발생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뉴캐슬병 예방접종, 검사, 조류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안)'을 제정하여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경우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제한되며, 부화장 및 농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뉴캐슬병 방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농림부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뉴캐슬병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연말에 가면서 뉴캐슬병

예방백신이 지역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임에 따라 2억수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되었고 내년부터는 기본배정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접종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적극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7 닭고기 먹는날, 99데이 행사 실시

본회는 계육협회와 연계하여 9월 9일을 닭고기 먹는날(99Day)로 제정하고 닭고기 소비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구구데이를 전후로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직거래 장터, 시식회 등을 통해 닭고기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KBS 1-TV 6시내고향은 9월 8일, SBS 맛대맛 코너에서는 9월 9일 다양한 닭고기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가 방영되었다. 또한 9월 7일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MBC 여성시대와 함께 99데이



홍보행사를 겸해 전국 50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MBC 여성시대와 함께하는 '닭고기 가족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되면서 청취자들에게 99데이와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구구데이는 축산기술연구소 이상진 박사가 처음 제창한 것으로 오리데이는 5월2일 삼겹살데이는 3월3일 등에 착안해 닭에서도 '화이트데이(白日)'인 4월 9일과 닭의 우는소리를 접목한 구구데이를 정하게 되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이 행사는 4월 9일 화이트데이와 함께 연례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8 종계장에 대한 질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캐슬병) 감염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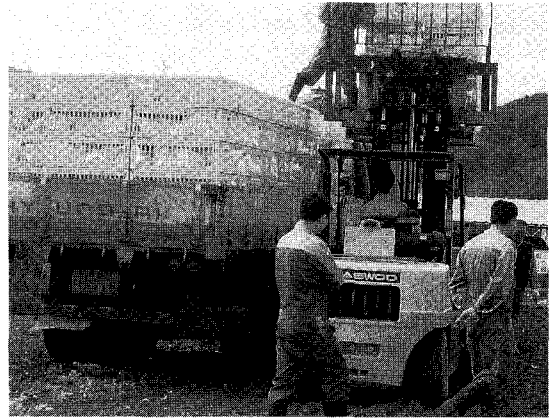
농림부에서는 난계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종계·부화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2주동안 검역원 및 시·도 합동으로 전국 243개 원종계 및 종계장에 대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에 대한 감염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 11월 17일부터 2주동안 부화장 40개소, 닭 도축장 20개소 및 농가를 대상으로 뉴캐슬병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양성종계를 도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계대로 의심되는 육용계병아리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뉴캐슬병의 경우 닭뉴캐슬병 근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0억수(40억원)를 공급하고 있으나 질병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조사의 경우 계군별 30수 이상 채혈한 후 급속혈청평판응집법 및 ELISA

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 한후 검역원이 이를 취합, 분석하여 농림부에 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캐슬병의 경우도 방역실시요령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용원종계 감축 결의 및 도태실시

지난 11월부터 원종 3사들이 원종계 감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종계업계는 물론 육계업계의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육계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원종계의 과잉입식이라 분석하고 원종계 적정 사육수수인 9만수의 원종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종계 3사와 수차례의 협상을 벌인 결과 올해 원종계 수입량을 (주)삼화육종 5만수, (유)한국원종 2만4천수, (주)하림 2만수 등 총 9만4천수로 감축키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 수입된 원종계수수는 적정사육수수인 9만여수를 초과한 15만수를 넘어섰고, 금년에도 전반기 수입실적을 볼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원종계가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면서 장기불황 예고에 따른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원종계업계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원종계 감축에서 금년 6월이전에 수입된 원종계에 대해 처리된 도태물량은 3사에서 2만 6천수로 도태장려금은 수당 31,250원이 지급되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분도 배정 수수를 초과할 경우 수입후 도태를 시켜야 한다.

절단 신선 닭고기 첫 수입

금년 전반기부터 중국에서 절단 신선육 닭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까지 수입된 신선 닭고기는 95톤으로 앞으로 닭고기 수입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된 닭고기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728톤, 45,976톤, 66,334톤, 84,865톤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국내 소비시장의 30%선까지 위협하였다. 금년 지난 10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는 69,924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8%가 낮아졌으나 이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가격이 생산비선 이하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육계경기가 회복되면 수입량이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년 수입은 총 83,000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수입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한 84개 업체로 큰폭 늘어났으며, 수입닭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 등을 통해 닭고기 수입 자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